

규모별 특화형 | 15-1

영세기업도 한-미 FTA 활용할 수 있다!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U사는 종업원 10여명으로 비닐봉투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영세중소기업

단위 : 건, 천불

설립일자	업종	종업원수	수출건수	수출금액
1989년 4월	제조	10	57	2,138

- 제품소개 :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(제3923.21호)
 -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는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상자·케이스·바구니·색과 백·통·캔·카보이병·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

2. FTA 활용전 상황

- 동사는 미국으로 비닐봉투를 수출은 하고 있었으나, 한-미 FTA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여 한-미 FTA를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세관에 FTA 컨설팅 요청

3. 극복 방안

- 세관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FTA 활용
 - 주요 수출물품(HS 제3923.21호)에 대한 원재료 소요내역 및 가공 공정을 확인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안내
 - 한-미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 8가지 항목 안내 및 한-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 제공

- 미국 원산지 검증 대비 서류보관의무 사항 안내 및 원산지 서명카드, 원산지 작성대장 비치 안내

4. 활용 효과

- 한-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
 - 수출의 전체가 미국으로만 수출되어 한-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연도별 0.3%씩 향후 10년 균등인하로 연간 6백~7백만 원의 관세혜택

HS 품명	기본	협정	혜택금액
3923-21.0000 플라스틱제의 포장용기	3%	2.7%*	6.4

* 2012(2.7%) → 2013(2.4%) → (매년0.3%씩 2021년까지 단계적 철폐) → 2021(0%)

- 한-미 FTA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-미 FTA를 통한 관세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, 세관의 1:1 FTA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한-미 FTA를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시 협상카드로 제시
- 대미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%정도 증가하였으며, 계속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인력과 설비를 늘려나갈 계획

5. 시사점

- FTA에 대해 전혀 모르던 영세기업도 FTA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